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년 2월 13일



복음나누기

연중 제6주일(2월 13일)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루카 6,17. 20-26)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7번 "행복한 사람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6장 17절,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17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20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21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22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23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24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25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루카 6,20)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루카 6,26)

하느님께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에 마음을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불행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말씀은 뜻밖입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을 '행복하다' 고 하십니다. 행복의 우선 조건을 '돈' 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난감한 표현입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주변을 살펴보니 부자라고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다음은, 굶주리고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어찌 행복하다 하시는지요? 풍요와 웃음이 행복의 '절대 조건' 아닙니까? 세상의 판단과 너무 다른 말씀입니다. 하지만 '서럽고 병약한 사람들' 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느님 나라' 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본시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셔야 '참행복' 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주시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이 넘쳐도 주시지 않으면 '불안한 행복' 으로 비춰집니다. '주님의 힘' 이 함께해야 건강한 행복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믿음을 가집니다. 삶의 어려움이 깊어지면 기댈 곳은 주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함께하시기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7번 "행복한 사람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거시길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소공동체 역할배분 ①

소공동체는 '작은 교회' 이자 '함께 참여하는 교회' 로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공동체에서 반장이나 서기에게만 많은 역할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소공동체 모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역할을 배분하면 좋습니다.

☞ 반장, 서기, 복음나누기 진행 담당, 선교담당, 봉사활동 담당, 회계담당

이때 역할배분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호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각 담당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장의 역할

- ① 모임 전 소공동체 구성원의 연락망을 가동해, 모임 장소와 시간, 준비물 등을 공지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합니다.
- ② 모임 공백기 동안 구역과 반, 넓게는 본당의 특이 사항이나, 알림사항이 있으면 메모해 둡니다.
- ③ 서기에게 협조를 구해 지난 모임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둡니다.
- ④ 지난 모임에 계획한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⑤ 소공동체 모임 진행자 및 각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역할을 숙지하도록 권고합니다.
- ⑥ 모임 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중재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진행자가 복음나누기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진행하거나, 한 개인이 나눔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기타 소공동체 모임 성격에 너무 어긋나는 몸짓 혹은 기도를 요구할 때 등).
- ⑦ 소공동체 모임과 복음나누기를 위한 전체적인 준비를 점검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